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ESG 경영 강화

롯데백화점 전주점, 자연보호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와 자연환경 보전·탄소중립 실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최동희)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실천에 나서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 22일 자연보호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 22일 자연보호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기업과 환경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한 실천 모델을 구축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보호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동희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을 비롯해 자연보호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지역 내 환경정화 활동과 자연보호 캠페인

전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자원순환 및 재활용 활성화,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ESG 관련 체험 및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그동안 지역사회

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 분야에서도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객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을 기획해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희 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백화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기업과 시민단체가 협력해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지역사회 전반에 친환경 가치가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23일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와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지역 고용 활성화 '맞손'

전주상공회의소-전북중장년내일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중장년내일센터가 전북지역 고용 확대와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3일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센터장 이명숙)와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부터 중장년,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고용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고용지원 사업 공동 홍보와 참여기업 확대, 설명회 등 고용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 추진, 고용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청년층(15세~34세)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로 약장려금과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층(60세 이상)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역시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중장년층에 특화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각 각 추진해 온 고용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전북지역 고용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 소비심리 급락... 4월 소비자심리지수 100.5

경기판단·생활형편 전망 하락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5로 전년(111.3)보다 10.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99.2) 역시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해도 더 큰 낙폭이다. 소비자심리지수

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낙관적, 미만이면 비관적 인식을 의미하는데, 전북은 여전히 기준치를 못돌고 있으나 심리 위축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주요 소비자동향 지수(CSI)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현재 생활형편은 97에서 90으로, 생활형편전망은 100에서 93으로 각각 떨어졌으며, 가계수입전망(102→96), 소비자

출전망(112→107)도 동반 하락했다. 특히 현재경기판단은 97에서 76으로 21포인트 급락했고, 향후경기전망 역시 98에서 86으로 낮아지며 경기 인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소득 관련 전망도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취업기회전망은 94에서 86으로 하락했고, 임금수준전망도 122에서 119로 낮아졌다. 가계저축전망 역시 소폭 감소하며 가계의 재무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선도기업 육성 본격화... 최대 1억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를 이끌 핵심 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2026년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자치도가 공동 지원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전담하는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사전에 지정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4개사와 초광역권 선도기업 2개사로, 지역혁신 선도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초광역권 선도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의 기술 자립도 향상을 위해 협업 연구개발(R&D) 후속 과제 기획과 신규 R&D 공모 준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인종과 특허 취득을 돕고,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도화, 글로벌 마케팅, ESG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경진원, '모두의 창업' 로컬 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로컬 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경험이 없는 일반 국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의 창업'은 전국 100여 개 창업 지원기관과 500명 이상의 전문 멘토가 참여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예비창업자 1,000명에게는 초기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이 지급되며, 창업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 보육 공간 제공,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이어진다. 이후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대 1억3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창업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로, 별도의 사업계획서 없이 아이디어 신청서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모두의 창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백령도서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전기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점검과 시설 개선 활동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1일 인천 옹진군 백령면 장촌마을에서 수험중 앙화와 공동으로 '도서지역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서지역의 전기설비는 염분과 높은 습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전선과 설비에 쌓이는 이물질로 인해 누전이나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기적인 점검과 선제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오상근 기자



이에 따라 공사는 이날 백령면 남포리 장촌마을 내 노후주택 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 함께 LED 전등과 차단기 등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개선 작업도 병행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전기안전보안관이 참여해 마을 외등 설치를 지원하는 재능기부도 함께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